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7월호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계속하자

충현교회가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3단계 지원방안으로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 농어촌평신도초청훈련, 농어촌전도대과송하는 사업이 해마다 계속되어 금년들어 1단계로 실시된 제4회 교역자초청훈련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미 끝났다.

4박5일간 진행된 수련회는 시간시간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료가 전달되었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게 하였다. 특히 성령에 대한 조직적이고 깊이있는 설명을 들은 한 목회자는 말하기를 과거에는 성령을 하나의 세력에 불과하고 인격적 하나님으로는 미처 이해를 못했던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 바른 성령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성경말씀을 중심한 건전한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경공부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배가운동장의 시간에는 목회의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계획을 세워 기도하며 목회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직을 잘 설득시키고 성경공부를 철저히 시켜 교회를 건전하게 부흥시켰다는 어느 목사님의 체험담에 용기를 모두 얻었다. 연노하신 교역자 한분은 말하기를 자신은 이제 노쇠기에 처하여 그날그날을 별계획 없이 지나다가 물러날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 새출발을 하여 양떼를 위하여 알찬 목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배가운동 성공사례 발표의 산 간증은 큰 감동과 새 결심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본교회의 초청훈련을 받은 그 훈련 받은 내용을 해 교회에 반영시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확실한 결과를 들려주는 단계까지 이룬다면 본 강의의 성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회행정 강의 중 교회의 모든 예식전행을 경건미있게 진행할 때에 끼치는 은혜스러운 면을 충현교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예식이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새로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기풍 목사의 일대기 순애보 영화감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잦은 핍박과 고생

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은 현농어촌 교역자로 하여금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농촌목회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호강이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자들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감사의 심정이 우러나왔다.

또 한가지 산 교훈을 받았다면, 충현교회의 봉사정신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충현교회의 수련회야말로 이기적인 정신을 완전히 떠나서 장소제공은 물론 강사·교재·숙박·식사·기타 경비까지 전담하는 이 엄청난 일을 자진하여 실행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오직 주 안에서만 해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회건축의 대사를 앞두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지방교회를 위하여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어 새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어김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기존실력을 갖고 아무리 애태우고 노력하여도 좀처럼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고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 실의에 잠겨 있는 자에게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였으니 이 수련회야말로 목회자에게 로댐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의 격」이라고 하겠다.

수련교역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좋은 기회를 마련한 충현교회의 당회를 비롯하여 각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빈틈없는 순서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신 성경학원의 목사님과 직원 여러분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감사의 소식을 전하여 드리는 길은 교회에 돌아가 열심히 충성하여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하며 각기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다.

우리 충현교회는 이 농어촌교회의 3단계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7월의 행사

- 2/제교회 · 월간충현 분과회의
- 3~7/수도노회 주일 학교 연합회—교사 강습회
- 13~15 장로수양회
- 9/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13~17/농어촌교회 평신도 초청훈련
- 16/월간충현 7월호 발간 · 출판위원회월례회 · 여전도회 월례회
- 17~19/청년부 여름수양회 19/권사회 수양회
- 20~21/여전도회 수양회 23/구역권찰회
- 24~27/초등부 · 새신자(여) 여름성경학교
- 25~29/중등부 여름수양회
- 30/해외복음선교회월례회
- 31~8.3/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호 차례

- <권두언> 농어촌전도사업을 계속합시다/주간
- <이달의 말씀> 맥추감사절을 바로
지킵시다/김장인목사...4
- <이렇게 답한다>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김하진목사...6
- <특집 I /우리나라의 계절학교>
· 계절학교의 어제 · 오늘 · 내일/임승원목사...8
- <특집 II /우리교회의 계절학교>
① 유 · 초등부의 경우
· 여름어린이 성경학교—그 문제와 방안
/김영휘전도사...10
- ② 중 · 고 · 대 · 청년부의 경우
· 무엇이 문제인가—그 대책
③ 중등부—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필요
/최명자...12
- ④ 고등부—말씀과 생활의 접합을 경험해야
/윤완철...12
- ⑤ 대학부—발전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이인희...13
- ⑥ 청년부—짧은기간 · 강사의존 탈피해야
/김경생...13
- 계절학교의 향방—그 제안/편집부...14
- ③ 장 · 노년부의 경우
④ 장년부—급년에 시작, 좋은 계기 될터
/신영대장로...18
- ⑤ 노년부—3 회례, 충현기도원에서
/김재창목사...18
- <쉽게 풀어쓴 기독교 교리> 모든 사람은 죄인
/이성근목사...19
- <1200자 칼럼> 시작이 반일까/오배용집사...20
- <찬송가감상⑥> 보좌에 앉으신/김중석전도사...20
- <도서정보> 6월중 구입도서, 기증도서...21
- <책소개> 자연과학을 통해 본 하나님
/윤형철전도사...21
-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22
- <구역장 노트⑩> 임종과 장례를 듣는 길①
/백성룡목사...23
- <교회소식>...24
- <편집후기 광고>...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표지설명 : 제 6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으로
마음된 78년도 여름행사가 8월말까지 연
이어 열린다. 여름 계절학교의 한 장면.

월간 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제 6 권 제 55 호

월간 충현

충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맥추절을 바로 지킵시다

신 16:9-12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가지 큰 절기를 바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나라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고, 그 두번째 절기는 맥추감사절인데 유월절 후 49일이 지나 50일만에 밀·보리를 거둬 들인 것을 기뻐하며 드린 감사의 날이고, 그 세번째 절기가 엄동설한 전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인 맥추감사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맥추감사절이 생긴 역사적인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북지로 향할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을 금식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로 깎아 글자를 새긴 비석 두개를 주셨습니다.

이 두개의 비석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나라가 있으면 백성에게 헌법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는 헌법이 없었는데, 종살이를 면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대로 살아가라!” 하시며 헌법을 새긴 돌비석 둘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맥추감사절인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으로 헌법을 주신 날입니다. 보통 명절이 아니지요. 놀라운 복을 받은 명절입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긴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만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늘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과 같고 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라” (행 2:1-4) 하셨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인 맥추감사절입니다.

가정마다 호주의 생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일곱님의 생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총현교회는 9월 6일이 선포된 날, 곧 생일입니다.

신약교회가 생긴 날, 세계 교회가 처음 생긴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세계 교회의 생일이니 얼마나 뜻

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세째로 밀·보리 수확을 감사한 날입니다.

이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밀·보리를 거둬들이게 된 것을 고마와서 감사, 감사, 감사가 뭉쳐서 감격찬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2. 구약시대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며 지켰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먹을 것을 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며 지켰습니다.

둘째로 회개하며 지켰습니다.

“복은 곡식을 먹는 동안 법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지켰습니다.

세째로 절심하며 지켰습니다.

“햇곡식을 먹는 동안에는 바로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며 지켰습니다.

네째로 구제하며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약속하고도 못 바쳤던 것을 청산하여 바치며,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뜻있게 지켰습니다.

3. 초대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첫째로 감사 드리며 지켰습니다.

말씀에 교회를 세워 주시고, 금년에도 여름 곡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로 밀·보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지켰습니다.

밀·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밀·보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이나 그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된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세째로 성도간에 화목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피를 쏟아주셨는데 우리끼리 뭐 잘했다고 싸우겠니? 그만두자!” 이렇게 말하며 서로 화목하였었습니다.

네째로 회개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묵은 곡식을 먹는 동안 법한 죄를 회개하면서 이 날을 지켰습니다.

다섯째 세계에 전도할 결심을 하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를 쏟아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고 물질을 바치고 피를 쏟으면
서 순교의 정신으로 세계에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전도할 것을 결심하면서 이 날을 지켰습니다.

4. 우리교회는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밀·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은 시골교회에서나 지키라고 하지, 그 사람들
이야 밀·보리를 실지로 거둬들였으니 실감이 나겠
지만 우리 도시교회에서야 그런 일도 없는데 꼭 맥
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
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제헌절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신약의 교회가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금년에도 이 백성을 위해 밀·보리를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첫째 우리도 감사하며 지키십시오.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고 밀·보리하고는 상관도
없단 말이야——”하며 교회가 생긴 생일날을 할아버
지의 생일만큼 못 여기고 지나간다면 그야말로 답답
한 신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맥추절이 있
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아들딸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우리도 회개하며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법한
죄를 뭉개하지 말고 털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
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째 올바르게 살기를 결심하면서 지키십시오.

헛곡식을 먹는 동안에는, 이제부터 남은 때는 하
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결심하면서 지키십
시다.

네째 우리도 화복하며 지키십시오.

우리 교인끼리 싸우지 맙시다. 교파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총회교회는 쓸데없는 싸움에 가담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화복하고 신자간에 화복하고 굳게
뭉치는 일에 힘쓰십시오.

다섯째 순교의 정신으로 지키십시오.

세상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주셨으
니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칠 순교의 정신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십시오.

여섯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키십시오.

사람은 제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며
칠 못가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
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이 날을 뜻있게
지킵시다.

5. 맥추절을 바로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그리운 나라였습니다. 아직 국

녁 하늘 아래 있는 내 동포들은 자유가 없습니다마
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못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서 보호해 주셔서 그 누구가 손을 못대는 자유와 평
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
생활을 바로 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터이니 자
유와 평안을 누리리라!”

둘째 육신생활에도 윤택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 산업에
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총회교회 교인들이 이전보다 육신의 생활이 나아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자는 영육
이 잘 사는 것이 틀림없구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째 성공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맥추절을 바로 지키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악을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기적이 생
진다는 말입니다.

그때서 공부하면 박사가 되고 장사를 하면 부자
가 되고 정치를 하면 선한 정치를 하도록 모든 면에
서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째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6·25동란이 지나자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을 나쁘
게 말하여 “지상지옥을 보려면 한국에 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상지옥으로 불려졌다는 말
입니다. 그런 한국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
시면 “지상의 천국을 보려면 한국에 가 보라!”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을 빨리 주셔서 마음에 천
국이 이뤄지고, 가정가정마다 천국이 이뤄지고, 교
회에 천국이 이뤄지고, 우리 나라에 천국이 이뤄지
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다 하늘나라의 편류편과 영
생의 복이 기다립니다.

우리교회는 이 맥추감사절을 정신없이 지내버리지
맙시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맥추감사절을 바로
지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원수
가 손 못 대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고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백성으로 살고, 실재를 모르
는 성공자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
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천국이 이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다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방언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 산전교육부 지도)

물음/오늘날에도 방언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기독교가 탄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으나 이 방언 문제만큼 두드러지게 난제가 되어진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최근에도 성도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던 중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되기 쉽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혼란만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방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장을 통하여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방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14:2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① 영적 은혜(기적적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을 한다는 뜻이라고 하고, (Calvin) ②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은사로써 일정한 내용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F.W. Grosheide) 이상 어떤 해석이 옳든지 간에 그것이 이적적으로 되어지는 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시대에 있어서도 계시시대, 즉 사도시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여 주었던 표준적인 이적과 계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 간에도 이것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경향이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도 시대의 사역을 “터들 뛰아 두는 것”(고전3:10)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림 때까지 장성한 교회의 뿌리와 터전이 되는 것이며, 뿌리에서 돌아난 나무와 같은 교회 시대에는 자라는 도중 뿌리의 형태로 그 자체를 거둬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 그러나 교회 시대에도 사도의 증표를 보여주는 이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 섭리는 있다(L. Berkhof)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런 일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① 예수님과 사도의 이적은 위급된 병자가 모두 치료되었으나 교회시대의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자도 있고, 치료 안되는 자도 있습니다. ② 예수님과 사도의 이적으로 고침받은 병은 재발하는 법이 없으나 교회시대의 신유는 그 병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침 병자들은 즉시 완쾌되었으나 교회시대의 신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시대인 오늘날에도 사도시대에 있었던 동질의 이적, 혹은 계시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성은 여지없이 흔들려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이적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있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단회적이지 계속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던 그런 은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사1:4)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금할 수 없으나(고전14:39), 방언을 장려할 만한 큰 은사는 못되며(14:18-19),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무익하고(14:6-10), 교회연합에 지장을 주는 것(14:11-16)을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미말에 은사이므로 방언을 말한다고 교만하지도 말 것이며, 방언하는 사람을 천사와 같이 우러러 보지도 말 것이며, 낙심치도 말 것입니다. 다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살피며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여름보다 뜨거운 열기로 여름을 맞는다. 직……○○○
 ○○○……장과 학교에서 휴가와 방학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이 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욱 닥아서는 기회들을 만들어 우리 영……○○○
 ○○○……혼이 쉬임을 갖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
 ○○○……이제 또 여름을 맞고 또한 여름 계절학교가 시작되는 7월을 맞으며……○○○
 ○○○……지금까지 해 온 계절 학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
 ○○○……선택등을 생각하고자 특별기획을 실시한다. 우리는 행사가 끝날 때 마……○○○
 ○○○……다 행사평가를 통해 그 행사의 성과를 반성하지만 이제 그런 반성에……○○○
 ○○○……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보아야 될 것이다. 월간총현에서는……○○○
 ○○○……이달호의 특징을 통하여 계절학교의 역사적인 고찰, 그 의의 등을……○○○
 ○○○……임승원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오늘의 우리교회의 계절학교에 대한……○○○
 ○○○……반성과 현황·전망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금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금년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과연 계절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금번 기획은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에 그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였음을 부언하여 둔다. <편집자>……○○○

계절학교—그 오늘의 위치

차례

특집 I / 우리나라의 계절학교

· 계절학교의 어제·오늘·내일……임승원

특집 II / 우리 교회의 계절학교

① 유·초등부의 경우

· 여름어린이 성경학교—그 문제와 방안…김영휘

② 중·고·대·청년부의 경우

· 무엇이 문제인가—그 원인

㉠ 중등부—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필요…최명자

㉡ 고등부—말씀과 생활의 접합을 경험해야

……윤완철

㉢ 대학부—발견적인 디딤돌이 되어야…이인희

㉣ 청년부—짧은기간·강사의존 탈피해야

……김경생

· 계절학교의 향방—그 제안……편집부

③ 장·노년부의 경우

장년부—금년에 시작, 좋은 계기될터…신영대

노년부—3 회째, 총현기도원에서 ……김재창

계절학교의 어제 · 오늘 · 내일

임 승 원 목사

(교사의벗 주간誌 발행인)

교회교육에 있어서 계절학교에 대한 필요성 내지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다. 근래에 와서 교육적 사명이 자각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교육적 기회를 요구하게 되고 이 기회포착을 위해서 주일 이외에 교육기간을 얻기에 교회는 노력하고 있다.

계절학교란 어느 계절을 쫓아서 교육기회를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래 계절학교는 '휴가학교' 또는 '방학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중심대상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어서 대부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의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근래에 와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휴가기간이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까지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이용하여 교회교육의 기회로 삼는 데서 '휴가학교'란 이름이 더 친근함을 갖게 한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농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개교회나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협력해서 '보통성경학교'나 그밖에 평신도 교육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특유한 교육형태가 형성되어 왔다.

이런 교육의 기회는 학생들에게는 '방학학교' 직장인에게는 '휴가학교' 계절적으로는 '여름학교' '겨울학교' 또는 '계절학교', 내용적으로는 '성경학교' 등 여러가지로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1세기의 역사—계절학교

이런 '휴가학교' 또는 '계절학교'의 역사는 1세기에 이르렀다. 1877년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퀘벡에서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물론 1866년 미국 오스톤 제2 교회에서 여름학교를 가졌다고 전해지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처음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긴 방학의 무질서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도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가르친 내용은 성경, 찬송, 제3, 수공, 훈련 등이었다.

1901년 뉴욕시의 로버트 지 보빌(Robert G. Bovile)이 처음으로 D.V.B.S.(Daily Vacation Bible School)이란 이름을 붙이고 본격적인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했다. 이 때는 여름방학의 대부분인 6주간을 계속했다.

이런 방학을 이용한 교육은 교회의 교육 부족의 효과적인 교육 보완의 기회로 효과를 거두게 되어 1900

년 대의 초반에는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더욱이 190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의 공교육기관에서 성경교육을 배제함에 따라서 교회의 교육적 역할은 보다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서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여건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시작 1922년 평북 선천

1922년에 평북 선천에서 한국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가 여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때 약 100명의 어린이를 1개월 간 교육했는데 이 효과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그후 이 여름 성경학교는 전국적으로 퍼져서 교회의 여름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있고 중요한 행사로 되었고 많은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1933년에는 1,149개 학교가 열려서 7,951의 교사가 참여하여 116,518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주목거리가 되었고 더욱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적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각 신문사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까지 하였다.

1932년에 있는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서는 이런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 운동이 높이 평가되어 세계 1등의 영예를 찾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 말기의 탄압으로 수년간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의 수난과 함께 정제하게 되었다.

해방후 교회의 재건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38 이북의 공산주의자의 교회탄압과 혼미하는 정세와 교회의 불안정성은 여러 년의 혼미를 거듭하였고 끝내 교육 정상화를 회복하지 못한채 6·25를 맞게 되었다.

3년만의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교회였다. 많은 인재를 잃고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질서를 잃은 채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나 고난중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은 큰 것이었다. 교회의 복구와 성장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을 이루었다. 1953년 전쟁이 휴전된 무렵부터는 미급하지만 계절학교에 대한 운동이 활발히 재개되었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에 필요한 교재도 발행되었다.

그후 교회는 재건·확장·성장했으며 앞다투어 교회교육은 다방면으로 시도되었고 계절학교는 여러면으로 시도되었다.

충현교회-겨울성경학교 처음 시작

그 중에도 특기할 것은 1962년 겨울 최초로 겨울 성경학교가 충현교회에서 시도된 일이다. 이것은 물론 최초의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교육은 과거에도 있어 왔다. 농촌지구에서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평신도훈련을 위한 지역단위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개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동일하게 의도한 겨울 성경학교는 이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무엇보다 보다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교육을 실시해 보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이 운동은 근래에 와서 여러 교파의 호응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호응하여 한국 특유의 계절학교의 일면을 나타내게 되었다.

계절학교 1 세기의 역사는 교회 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계절학교가 아직도 우리네 교회교육에서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이 운동이 외국에서 시작되어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해졌고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의외의 영향받은 면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무엇인가 아직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계절학교의 위치 못 찾아

무엇보다 계절학교의 목적과 의도가 너무 막연하다는 점이다. 계절학교를 실시하는 게 교육기관이나 이를 계획 시도하는 각 교파나 교육 당무자들은 교육전체로서의 계절학교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하나의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행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교단마다 교육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계획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계절학교나 그밖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쉼 자리를 찾아야 하고 의도하는바 자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직도 이런 총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런 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다음은 이런 계절학교를 수행하는 당무자나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는 열의는 놀랍지

만 교회교육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회에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회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보다 신앙적인 내용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확신하고도 강인한 목적의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아무리 많은 수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름 하늘의 구름처럼 어더론가 흩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

다음에는 한국 교회가 교회교육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교인이나 학부모로서의 교육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오늘날의 교회교육의 일반적 인식태도로서는 도저히 내일의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고교생 1인 교육비-학기에 84,000원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교육에 치중할 리가 없고 교육을 하지 않고서 인재를 양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내일의 교회의 혼미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교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자녀와 후대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최대한의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교인은 교회교육을 위한 투자가 너무나 빈약하다. 현재 고등학교 1인당 1학기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생활비제외) 84,000원 정도인데 비해 교회교육비는 1,500원을 넘지 못한다. 이것도 실은 교육비가 아니라 현금이고 보면 한심스럽게 이를 대었다.

다음은 교육내용과 방법의 색신이 필요하다. 교회교육 전체로서의 교육과정과정을 만들어야 하고 과감하게 교재를 개발하여야 하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계절학교 교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일부 학생들의 학습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개발 분야가 너무 많다.

시들 줄 모르는 교회교육운동

다음은 교육인재의 양성이다. 무엇 때문에 계절학교를 하는지 자기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중심사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교사가 계절학교를 지도한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일례를 들면 강습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운동시간에만 참여하고 다른 시간에는 참여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들은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다른 과목은 실차레요 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영적 운동은 특별한 축복이 있다. 우리네 교회교육 운동은 시들 줄을 모르고 계속 향상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그러나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 축복을 거두실 계다. 만일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어진 축복의 여건을 잘 선용한다면 계절학교 운동의 앞날은 밝을 것이며 한국 교회교육은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여름어린이성경학교—그 문제와 방안



김 영 휘 전도사

(유년부 지도)

매년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어린이 성경학교가 이제의 연례적인 행사 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근본적인 기독교 교육목표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실시되어 온 여름 성경학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그 개선책은 어떤 성경학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그 개선책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성경학교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실시하는 교회와 담당 지도자 혹은 실무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왜 개교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목적 의식이 거의 결핍되어 있거나 혹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되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타교회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도 안할 수 없어 하는 식이고, 또한 지금까지 해 왔으니 금년에도 해야 한다는 식이 지배적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학교는 정말로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성경학교폐지론」까지 등장할 만한 것이다. 행사자체를 위한 연례 행사를 치를 바에는 엄청난 예산과 수고와 맘을 쏟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마다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는 교회나 지도자 그리고 실무교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성경학교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목적은 지교회의 해당부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

① 성경학교의 기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 부근에 있는 학교나 동네의 불신자 어린이들을 전도하여 결신케 하는데 치중하는 것과

② 기존 학생들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공동생활과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생활면에 치중케 하는 것과

③ 학생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역점을 두어서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이루어 왔던 성경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증생의 변화와 확신과 성장을 위한 일에 치중하는 것과

④ 이상의 세가지를 동시에 목표를 삼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분명한 목적을 성경학교 지도자나 실무자들이 먼저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이들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선정과 진행상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름성경학교의 교육내용과 평소와 실시되어 온 해당부서의 주교교육과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름성경학교는 주교교육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행사의 하나로서만이 치루어진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여름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보다 이후가 주교교육의 효과면에서 보다 더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학습지도의 문제이다.

보다 일관성있는 교과과정의 수립과 학습지도를 위하여 몇가지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① 총회의 보다 일관성있고 풍부한 주교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성경학교의 분명한 방향선정과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보다 충실한 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름성경학교 교재의 편찬에 있어서 주교교육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고령적인 집필자들이 모여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과과정의 수립과 편찬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숙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며 일관성있는 교재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② 일관성 있는 성경학교 학습지도를 위한 전달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각 노회별로 실시해 오던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에서 보다 충실하고 분명한 내용 전달이 있으면 한다. 각 노회별 경쟁이나 선전을 위한 그리고 행사 위주를 위한 강습회에서 탈피하여 강습회를 통하여 지교회 담당지도자들이나 실무자들에게 매년 성경학교의 참 의의와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강조해야 하며, 아울러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그 방법과 운영면에서도 각 노회별 강습회와 신학교(특히 총회신학교)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가 있으면 한다.

일례로 강습회 강사진도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교수나 신학생)을 과감하게 내세우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강습회 시기면에서도 각 노회와 신학교가 잘 타협하여 대부분의 신학교 재학생들이 지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행사의 주역인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학교의 학기말 시험기간과 강습회 일자가 중복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셋째, 여름성경학교의 명칭이 밝혀 주고 있는 대로 성경학습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심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실제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학습의 시간보다는 어린이의 흥미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그리기, 글짓기, 노래자랑 및 게임)이 더 많게 계획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초창기부터 실시해 온 성경학교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 선교사들에 의해 실시되었던 성경학교는 주로 농촌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성경공부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이와같은 집중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진리와 하나님의 체험과 나아가서 인격의 변화에 강조를 두어 왔다. 이와같은 좋은 전통은 계속 오늘날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경학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① 성경공부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많은 시간으로 배당되어야 하며

② 성경학습을 지도할 때에도 공과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 그 자체가 중심교재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찾아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특활이나 창작활동 심지어 오락시간까지도 성경학습과 관련된 것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재 내용 가운데서도 성경학습에 적합한 구체적인 특활이나 창작활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함께 실려 있어야 한다고 본다.

네째 평소의 종교교육도 마찬가지나 특히 성경학교를 위하여서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반학교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점이다.

기독교가 아직 생활화되거나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일반학교의 지원을 생각도 못하고 가정의 지원도 실상 대하기 힘들며, 겨우 교회만이 외롭게 분투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교회 전체가 지원하기보다는 해당부서나 관계된 몇 사람만이 오히려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 사실 어린이 개인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일이라고 볼 때 이는 해당부서나 몇 사람에게만 일임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요 지나친 무리일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화란에서는 한국처럼 별도로 주일학교 조직이 거의 없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가정 중심으로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신앙지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칼빈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경우처럼 주일과 성경학교의 짧은 몇 시간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부터가 큰 무리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미국의 경우에서도 성경학교 개교를 위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목사님이 예배시에 광고하고, 게시판에 포스터도 붙인다. 또한 달 전부터 교사의 지원을 받고, 성경학교의 재정을 위해 연초부터 헌금함을 교회 출입문 옆에 설치하여 수시로 교인들에게로부터 지원금이 준비한다. 그리고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에서 교회와 가정의 관계를 위한 특별순서를 가진다.

일례로 마지막 날에 「가족의 밤」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족참정이나 친교를 위한 순서가 실시된다. 교회교육과 가정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을 짓는 교육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교회 전체와 신자 가정만이라도 종교교육에 보



다 관심과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또한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되며, 어린이의 전생 활영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장소 면에서 교회 중심의 성경학교보다는 가정을 떠나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집중적인 신앙훈련의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다섯째,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성경학교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할 때 교육적의의와 사회문화적의의가 있는데, 전자는 지금도 계속되나, 후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사회문화적의의란 성경학교를 통해 당대 문명퇴치, 한글보급,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수, 신문화보급에 큰 공헌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사나 조선일보사에서는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자진 인쇄하여 공급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회적, 국가적 상황이 달라졌으나 오늘날에 맞는 사회문화적 의의를 찾아야 된다.

특히 최근의 교회교육이 일반사회의 생활과는 좀 분리된 내용과 사상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회교육과 일반문화의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회복이 다시 있어야 될 줄 안다. 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복음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성경학교 사후처리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성경학교 동안 배운 내용이 이후에도 계속 종교교육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확인되어야 하고, 새로 나온 학생들을 계속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올바르고 분명한 성경학교의 목적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함께 빈틈없는 조직과 행정 그리고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과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고 해도 운영면에 있어서 허술하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지적되므로 여기선 상세히 쓰지 아니하겠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학교를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경학교를 마친 즉시부터 다음 해를 위한 계획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연초부터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그 원인

중등부

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필요

최 명 자

(중등부 교사)

금년부터는 중현기도원에서 하기수양회를 갖게 되니 참으로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대번 느끼는 일이지만 어린 학생들이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도 싫다 하지않고 시간시간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없는 못 볼 감격스러운 일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그때의 감격들이 시간이 갈에 따라 사그러져 버리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일은 비단 중등부 수양회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양회가 그와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중등부수양회를 참석하며 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첫째로 장소의 협소로 인한 충분한 기도훈련을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교사부족으로 학생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며 보다 정성껏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등부 학생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일대일의 관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째는 수양회 기간중에는 웬지 모르게 교사나 학생이 모두가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 같다. 그것은 그와같은 수양회의 열기가 바로 1~2일이 지난 주일에조차도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3가지가 수양회의 문제점이 될 것 같다. 물론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수양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또한 교사와 학생과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한 친구끼리의 참다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평가회석상에서는 이런 원태의 목적에 얼마나 접근했는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진행상에 늘 있을 수 있는 진행자체의, 준비자체의 문제만 가지고 жал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평가회에서 그때 그때의 학생들의 반응과 발전하는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참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존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여름수양회뿐만 아니라 겨울수양회도 외부(중현기도원)로 나가 열린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등부

말씀과 생활의 접합을 경험해야

윤 완 천

(고등부 교사)

8월의 달력엔 동그라미 다섯개가 줄이어있다. ...⑦⑧⑨⑩⑪... 이 동그라미 하나 하나는 우리들의 기다림이고 기대이며 설렘이다. 지리하기만 한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유독 수양회는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젊은 교사들에게는 고교 시절의 수양회가 어제 일인 듯 잊혀지지 않는다. 열기에 싸인 그 기도 소리들과 냇가에서의 그 대화들과 나뭇길 달아들던 밤의 모닥불 가에서의 그 결심들이 마음의 사진첩 속에 선명하다. 수양회—거기에는 압록강 가의 씨름이 있고 벨엘의 서원이 있다. 옛 선민들이 듣고 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격과 인격의 부딪침이 있다.

수양회는 강사와 학생과 진행의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서 큰 효과를 거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학생일 것이다. 학생이야말로 수양회의 주인공이요 목표물인 것이다. 학생들은 수양회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갈구한다. 그들은 이 변화가 은혜를 통하여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은혜란 곧 체험을 의미하고 그것도 자기가 상상하는 특정한 형태의 체험에 집착하는 성향이 짙다. 또한 학생들은 체험의 형태뿐 아니라 그 체험이 닥쳐올 시간과 장소까지도 미리 상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낮시간은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공부 등으로 "소일"하면서 부흥회와 철야 기도회를 대기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밤마다 기도 소리는 높아만 간다. 맨 뒷 줄에는 이 누적되는 은혜에 감동한 교사의 감사기도가 있으나, 앞 줄 학생석에는 "주여, 이제 하루밖에 안남았나이다"하는 안타까운 기도소리가 높다. 마지막 밤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뜨거운 결심들을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양회 동안에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놓고 굳게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수양회는 모처럼의, 그야말로 모처럼의 공동생활이다. 수양회의 독특한 능력도 말씀과 생활이 한데 조화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따라서 진행은 단순히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단계를 넘어 서서 그들을 폭 넓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입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행사중심의 진행방식을 지양하고 멤버·십을 요체로 한 새로운 진행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메시지 자체를 강조하던 수양회로 부터 메시지와 생활의 접합을 강조하는 수양회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즉시 실천하도록 지도해 준다면 그들은 참된 문제에 봉착하며 변

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바로 수양회 기간부터 그들에게 사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겸손히 행하게 하자. 혹은 겸손치 못하고 사랑치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혹은 다투어 방청소를 하고 남의 밥그릇을 나르는 일이 이렇듯 주님과 가깝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밤에 도마불 앞에 둘러앉아 우리가 여기에서 행한 것 같이 늘 행하게 하시어 이 기쁨을 영원히 갖게 하소서 하는 서원의 기도를 올리게 되리라. 체험은 이론과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에서 오는 것이다. 그 실천의 목표를 키워낸 포지는 바로 이 4박 5일의 수양회가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키워 낸 사랑의 목표를, 겸손의 목표를, 봉사의 목표를, 찬송과 기도의 목표를 가정과 학교의 생활에 옮겨 심는 데에 수양회의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부

발전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이 인 회

(대학부 4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양회가 준비되고 개막되고 끝나 어디서부터 어디로인지 돌아온다. 수양회의 특수성이 갖는 많은 장점들이 누구든지 수양회에 대해 무관심해 질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각자의 자세와 시기에 따라 깊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주어왔다. 그러나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수양회에 대한 몇가지 평들은

「수양회 자체가 무엇을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성도와의 교제쪽에 치중하겠다」

「방학중에 가질 수 있는 즐거운 행사」

「수양회에서의 열정적인 분위기가 실제적인 무엇을 가져온다고 보진 않는다」

「극히 카리스마적인 리더만이, 그것도 단기간에만 부흥의 스타일의 수양회를 인도할 수 있다. 더욱 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놀라운 경험에의 동경, 놀상 잔재해 오던 꿈에 불을 붙이는 수양회, 여기서는 변화를, 그리고 영혼에 결정적인 어떤 것을 요구해 온다. 그 정체에 대해 좀 더 깊은 자기나름의 해석과 적용을 갖지 못한다면 혹자는 회개, 결심, 해이, 소위 은혜를 쏟아버림, 좌절, 또다시 부흥회나 수양회 같은 외부적인 조성을 기다리는 악순환을 형성하거나 자기 기만의 상태를, 혹은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방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며칠동안 우리를 고무시켜주는 말씀과 찬송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오직 영혼의 관심속에 있을 수 있다는 기쁨이 평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계속되기를 바라는 데에는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이상스런 표현이 나온다.

평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에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있게 지도할 수 있다면 수양회는 신앙의 여러 단계중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발전적인 디딤돌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진 교육과 훈련의 장(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양회의 평가는 분위기나 즉각적인 반응에서 보다는 생활습관속에 파고

들 수 있고 각 개인에 의해 키워질 수 있는 부단한 연습의 한 단면인가 하는 것으로 가능해야 한다. 수양회는 평소 교회교육과의 연관성, 그 다음해 수양회와의 연관성도 고려되어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련의 것이었으면 하는 피상적인 바람이다. 거기에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은 감동으로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신 것을 간청해야 할 것이다.

청년부

짧은기간, 강사의존 탈피해야

김 경 생

(청년부 회원)

청년부는 하기수양회를 매년 7월 17일 제현전을 전후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해 왔다.

청년부의 경우 이 기간이 큰 문제가 된다. 각부 주교의 교사들이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7월 20일 이전에 수양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대부분이 직장인 이기에 7월 20일전 휴가문제가 더러는 곤란한 형편등으로 7월 17일을 중심으로 하여 16일 저녁에 시작하여 18일 새벽에 나오는 2박3일(실질적으로는 17일 하루)의 짧은 일정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계획과 진행 모든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양회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적으로 청년부를 살펴 보면 2부 주일학교 중에 교과과정이 없고 회원들의 진급, 혹은 수료등이 없는 아주 특수한 주일학교이다. 따라서 청년부 연중 행사의 하나인 수양회 역시 마찬가지다. 유, 초등부나 중, 고등부처럼 총회나, 교회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질 수 없고 다만 선정되는 강사에 의존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 하여야 한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나 발전이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수양회 기간중에 성경을 한권 또는 일부를 배우고 오는 일이라든지, 교리적인 공부를 한다든가 하여 그때 배운 말씀들이 일생동안 회원들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는 수양회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개 수양회이후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뜨거운 상태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때의 그 뜨거웠던 열심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문제들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 올해는 “삼 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칼빈주의 신앙자세를 재 정립한다”라는 목적으로 “청년과 하나님” “청년과 예수님” “청년과 성령님” 즉 삼위 하나님과 청년과의 관계를 배우려고 계획을 세웠다. 뿐만아니라 성경 한권을 배우기 위해 “믿음의 교리서”인 갈라디아서를 성경퀴즈 대회의 범위로 삼았다. 없었던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간문제와 교과과정 정립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겠다. 수양회의 기간은 회원의 노력과 기도로 가능하며, 교과과정은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계절학교의 향방—그 제안

편 집 부

1. 서 언

올해도 여름은 찾아왔고 이달 말이면 각급학교는 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직장인들은 휴가기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교회는 여름성경학교 또는 하기수양회를 열어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여름에도 풍성한 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넘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계획하고 무자한 만큼 모든 교회가 알찬 수확을 거두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우리나라가 선교에는 성공했으나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 크고 웅장한 구미교회들이 오늘날 텅텅비어 쓸쓸한 옛 시대의 유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외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만 열심했지 내적으로 교회가 교육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선교들의 신앙이 대가 끊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한 구미 교회의 전철을 이제 갓 피어난 선교 100년의 우리 교회가 다시 밟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요, 나아가 우주적인 문제가 되어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거의 가까와 왔다는 뜻도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교회와 같이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뚜렷한 주교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중차대한 것이다.

과거의 성경학교는 주교 교육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로 다방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목적의식의 결여와 인적 자원의 부족 내지는 미개발, 경제적 문제등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방조차 묘연한 오늘날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계절학교의 방향설정이 분명치 못하여 맥빠진 연중행사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안타까우리만치 비일 비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근본적인 수술로 먼저 초창기의 좋았던 점을 전통으로 살피 분명한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줄로 안다.

2. 문제의 이해

우리교회 25년 역사와 함께 시작된 (부주일학교 영아부제)의 여름어린이성경학교, 16년의 역사를 가진 중·고등부수양회, 8,9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 청년부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중·고등부 시절의 피교육자가 이제는 수양회전체를 운영하는 장로로, 수양회 전체를 진행, 지도하는 지도

교역자로, 교사로서까지 성장해 오면서 계절학교는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교회가 여름을 이용한 교회내외의 행사들로 7,8월의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발전해 오고 잘 되어져 가는 여름 계절학교에 새삼스레 그 의미, 목적, 새로운 방향모색을 한다는 일이 다소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도 드나 이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은 모두가 깊이 생각해 오고 있던 일임을 잘 알수 있을 것이다.

수양회의 근본목적은 양적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의 성격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는 수련회적인 성격인 것이다. 즉 신앙의 지적 향상과 신령한 경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특수하게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기 위한 단기 내지는 보충 성경학교, 특수 성경학교로 생각된다. 더구나 최근년에 와서는 중등부에서도 교회밖의 곳을 택하여 수양회를 열고 있는 바 이는 서로 지체된 형제들의 공동생활이란 의미가 첨가되어 더욱 뜻있고 값진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단 2~3일이라도 숙식을 같이 하며 한 목적 아래 함께 생활한다는 단체 생활이란 특수성이 각부 여름 계절학교의 장점이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단체생활의 장점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여 서로가 하나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교제생활의 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생활의 지체활동인 이 여름수양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이런 단체의 생활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고 서로가 하나되지 못하고 말씀, 기도생활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우린 이와같은 요소들을 점검해 보므로 우리의 문제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말씀과 생활이 조화되는 체험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체험이 없고,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체험이 없는 일이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훈련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일이다.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대학부 4년의 10차례의 하기 수양회를 참가했던만 말씀에 계속 무식함만이 있는 경우는 무엇일지 말해 주고 있는가?

셋째는 진행에 있어서 규율과 훈련이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다. 단체생활에서의 자자의 의무와 책임, 희생,

봉사 등에 있어서 사회의 어느 단체보다도 훨씬 미달하고 있다. 좋은 예로 보이스카웃의 야영훈련, 기업체의 사내 훈련, 새마을연수훈련 등 또한 가나안농학교의 규율과 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꼭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잘 짜여진 프로그램 새벽기도, 식사 오전특강, 토론, 점심식사, 친교순서(성가경연대회, 찬양대회, 운동회등), 저녁부흥회, 기도회·캠프화이어를 가지고 주제와 목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도 잘 치르고 돌아오는 수양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해결의 방향

‘오리터 은혜를 쏟고 오는 수양회’ 부담만 더욱 쌓은 수양회, ‘뭔가 시원함이 없는 수양회’란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수양회 계획 준비, 모든 진행을 살펴 볼 때, 백보 양보해서 아무리 계획, 진행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런 평가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수양회에 참여하는 각 개개인의 목표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소위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줄로 생각되며, 이런 잘못된 이해는 많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는 은혜나 체험을 이야기 하면서 특수한 변화를 크게 요구하는 바 이는 특수한 경험, 큰 변화가 아니고 바로 생활속에서, 대화속에서, 찬양속에서, 말씀속에서, 운동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하에서 해결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

① 말씀과 생활의 조화다.

수양회를 참여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 수양회는 단체생활이므로 단체를 통하여 보고 느끼며 전체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수양회 기간이 아닌 때보다 더욱 더욱 ‘나’ 자신 속으로 침잠되어 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많은 경우에 수양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개인 개인의 목표와 자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신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선 먼저 이 약점을 벗어나야 한다. 자기개인의 문제와 목표를 가지되 그 해결은 자신이 아닌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자아로 꼭 찬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자신에의 몰입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길밖에 안된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우리는 수양회의 모든 시간시간속에서, 행사속에서, 교제속에서 살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변화되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도자나 교사들은 시간, 시간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침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루를 예비해 주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찬양과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 서로가 한 지체됨을, 하나가 됨을 체험하며, 주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실증할 수 있고 오후의 친교시간들을 통하여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 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자를 깨달을 수 있고, 저녁 부흥회 시간을 통해 말씀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잠자리 기도회를 통하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시간, 시간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실과 서로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겼음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일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를 계속되는 중에 우리는 우리가 고뇌하고 있던 문제들이 자신도 모르게 해결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말씀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렵게만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말씀과 생활의 일치, 조화는 우리 생활의, 시간의 전반에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에 그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다.

② 경건교육의 강화다.

여름방학이 되어, 여름학교나 수양회를 열면 학생들은 잘도 모여준다. 학교생활에서 편가를 채움 받던 그들이 한달 동안 공백이 생기니 교회로 찾아드는데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편가를 가득 채워줘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중요한 것은 7, 8월의 수양회보다도 9월 이후의 결과이겠는데 그 열매가 싹트지 못



하고 수양회를 갖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버리는 교회교육이라면 뭔가 채워주진 하는데 그것이 영속성이 없고 열매가 생길 수 없는 이 세상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열어놓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채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흥미중심, 오락 위주의 것을 채워주고 성경말씀은 양념 치듯 한다는 비판이 높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 이 세상 지식은 굉장한 발달을 하여 교회가 따라갈 수 없다. 학생들은 고도로 발달한 흥미거리, 오락에 젖어서 배움을 즐기고 있는데 이들을 교회에다 붙잡아놓고 무슨 노래 유희 게임으로 흥청대니 그때는 재미있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게 없다. 학생들은 재미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다. 본말을 전도하지 말자. 주식과 부식을 혼동하지 말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을 심지 말고 영을 심고 영을 채워주자 한마디로 여름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경건교육이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영적 훈련 곧 경건교육은 학생들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남아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갱생시키게 된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 인격적인 변화를 맛보게 된다. 오늘날 자유주의 물결로 인해 경건교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경건생활은 기독교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목표가 된다. 경건교육을 위해서는 성경교육과 기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성경교육

보 교회의 70% 이상이 장로교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경교육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교회에서 충분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말씀 없이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5백만의 신도 수를 갖게 되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위치변화를 하게 된 것은 애초부터 성경말씀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경회 운동이 전국을 메아리쳤을 때 그 속에 한국교회의 힘이 축적되었던 것이다. 그 저력으로 인해 무서운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빛나는 전통이 무너져가는 듯 해서 안타깝다. 성경교육이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평소의 주일학교에서는 시간과 프로그램에 쫓겨 충분한 성경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1주간의 여름수양회 때 그동안 못다한 성경말씀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생각하

고 생활하는 철저한 신앙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도교육

요즘엔 편리한 인스턴트 시대가 되어 가지고 귀찮게 기도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에 가면 의례 임원들이나 기타 나 아닌 타자(他者)가 편리하게도 내 대신 기도해 준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아멘! 한마디면 족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성기도는 대중집회에서 참 좋은 기도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형식에 그치는 수가 많다. 또 교회에서 별로 기도 안하는 학생이 집이나 학교에서는 얼마나 할까. 그러므로 친주교 아닌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자가 기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간절히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몸소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라. 이 기도훈련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한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신비를 맛보면서 조용히 무릎 꿇는 그런 생활을 수양회에서 뼈에 스미도록 익혀가지고 나와야 하겠다.

황금같은 여름수양회에서 평소에 다하지 못한 성경교육과 기도교육을 성실하게 배운다면 그 보충교육의 효과는 정규교육의 허(虛)를 보충할뿐 아니라 이나라 장래의 기독교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100여년 전에 내린 기독교의 뿌리는 그 원색적인 믿음을 유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③ 강화훈련을 해야 한다.

수양회는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기 위한 단기 내지는 보충교육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강화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과 훈련에 역점을 둔 운영임으로 수련회의 성격을 띤 강화훈련의 학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나 학생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와 각오가 있어야 하고 훈련을 위한 규율이나 규범을 복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훈련이라 함은 고전 9:26-27의 의미 처럼 행동과 생활을 절제하게 건뎌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르치고 이것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곧 훈련이다. 그러므로 첫째 제철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예배, 전도, 봉사, 친교 등의 신앙생활 훈련을 특수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실제로 그 기간에 훈련시켜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하며 둘째 단제생활의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한개인 또는 가정단위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생활을 통하여 단체생활의 훈련을 시켜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 주고 서로 도와주며 희생정신을 길러 주어야 한다. 세계 봉사적 독립적 정신함양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정신과 생활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 자기의 책임과 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 책임있는 사회성 확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회생활의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인격의 수련과 올바른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과내용과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발하여 운영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생활하는 교육으로 일을 넣어 주고 생명력과 독창력과 자립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일 하고 자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있어야 만 할 것이다. 계절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있는 후에야 세뇌 높은 규율과 규범을 준수할 수 있으며 생활 자체가 변화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학교 다니는 개구장이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3, 4일 나가다니만 의의한 태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은 주위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신교육 내지는 훈련의 효과인 것이다. 강화훈련을 통하여 신체의 단련을 하여 과거의 개구장이 습성을 버리고 의의한 태도로 변하듯 계절학교 체제가 태권도 도장이 되어 도장을 드나드는 개구장이 아이들로 변화 되게끔 훈련 시키듯 계절학교를 등록하는 몇 사람들을 올바르게 훈련시키는 신앙의 훈련 도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도장의 규율과 규범을 설정하여 철저히 규제하여 준수케 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을 복종하며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지땀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거쳐야 태권도의 급수가 오르듯 고되고 어려운 신앙훈련을 통해 서만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훈련을 충실히 시키지 못하거나 충실히 훈련에 임하지 못할 때는 그저 무익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신앙 훈련도장을 운영하는 자나 도장에서 훈련받기 위해 등록하는 자나 일심 단결하여 협조 이해와 각오로서 만이 올바른 훈련이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 언

이와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마다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꼭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곧 시정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못함이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작부 주교에 전담교역자가 있어 충분히 검토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에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우리 전문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 글을 맺으려 한다.

아무리 성공적인 수양회 끝 위에서 제시된 영적 체험을 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훈련으로 내용을 삼고 강화훈련으로 다져진 수양회나 하드래도 시일이 지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 모두 시인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적인 확인과 연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봄철(4월 5일, 5월 5일, 6월 6일, 4월 8일, 학년말 방학을 이용)과 가을철(10월 3일, 10월 9일, 11월 15일)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학년별 수련회를 제안한다. 또한 청년부의 경우는 1박 3일(실질적으로 1일)의 일정을 하기수양회라는 무



거운 계획 속에 넣어 무리하게 진행하느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철수양회를 실시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 말씀공부와 기도 훈련 철저한 훈련을 통한 신앙훈련의 수련회가 계속될 때 “이번 수양회는 강사없이 우리끼리 하자”라는 이유가 나오고 봄, 가을의 학년별 수련회가 아니라 휴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자” “배구를 해도 기도원에 가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

정부는 지난 달 말에 「한국정신문화원」의 개원을 보게 되었음을 잘 아는 바다. 이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 히록 학교지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적어도 그분들 쯤이면 크리스찬의 눈(Christian Point of view)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사건을 풀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흔히 말하는대로 고도성장을 하여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의 사회상을 보면 물질만능주의인지 인간의 비인간화인지 때문에 서구의 몰락현상의 퇴행적 징조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5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대적 풍조를 막을 수는 없다. 때문에 물질문명의 팽배 가운데서 전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이 나라도 별 수 없이 서구의 몰락 역사를 뒤따를 것이다. 이것을 미리 간파한 정부가 정신문화원을 개원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러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경고를 시사받아 다음 세대를 담당할 2세의 주교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8, 90년대 나아가서는 2천년대를 성공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깊은 연구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나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 만큼 교육을 위한 파감한 정책입안과 인적, 물적투자가 충분히 뒷받쳐 지어야 할 것이다. (*)

장년부—금년에 시작, 좋은 계기 될터

신 영 대 장로
(장년부 부장)

1. 계 획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4-15) 말씀을 근거로 「바로 알고 바로 믿자」라는 주제로 강사 임종만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론에 대하여 강의들으면서 8월 1~2일까지 1박 2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장년부는 물론 충현의 모든 장년성도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갖고자 합니다. 장년부는 자체수업이나 교회보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인당 2천원정도의 회비를 징수해서 경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 장년부에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장년부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2. 진 행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 8월 1일 오전 10시 교회를 출발해서 다음날(8월 2일) 오후 5시 기도를 출발 할 때까지 식사와 취침 그리고 약간의 휴식시간과 오락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강의시간으로 배정해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코자 합니다.

3. 전 망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미 얼마 전에 대학부에서 임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론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임목사님의 생생한 체험적 신앙간증과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장년부 성도들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문제점

본교회 장년부가 발족한 이래 처음 가지는 수양회가 되기 때문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장년부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 주부이기 때문에 가정을 비우고 이틀동안 나가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전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큰 문제는 역시 수송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백명 이상의 인원을 기도원까지 수송하려면 최소한 대형버스 5대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당회와 해결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년부—3회째, 충현 기도원에서

김 재 창 목사
(노년부 지도)

1. 계 획

배우는 것은 연령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3회째가 되는 금년 노년부 수양회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시90:12)라는 총제목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생행로를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재검토하여 보면서 받은바 은혜는 감사하고 죄악된 생활은 청산하고 여생을 깨끗하고 알찬 생활로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진 행

신령한 예배와 성경공부시간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먼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도록 진행할 것이며 주님을 모시고 친교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학생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새로와질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즐거운 역사가 이뤄지도록 진행 될 것입니다.

결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자유시간과 휴식시간도 적당히 배려하여 지루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젊어지는 수양회가 되도록 피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전 망

전년도보다 좋은 성과가 확실히 됩니다. 노년부 학생 거의가 밖에 나가서 수양회 갖기를 소원해 오던 대로 이번 우리의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갖는 수양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미 등록한 학생 전원은 물론 다른 노인들도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역시 전원이 동원되어 헌신적 봉사를 아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김 창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열심어린 기도와 여전도회의 정성어린 사랑의 협조에 힘입어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4. 문제점

① 교통문제: 다소 열려가 되나 대절버스만 준비된다면 안전한 수송과 내왕이 가능하리라 보아집니다.

② 숙식문제: 주무실 때 불편이나 병 나서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조심할 것이며, 잠수시는 음식이나 음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술적인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③ 경제문제: 교회에서 할 메와는 달리 배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인데 다른 부처럼 자체수입도 없고, 회비제도를 신설하여 노인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특별예산이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이 성 근 목사

(출판위원회 지도)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요, 그의 말씀은 영혼의 약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는 대단히 쓴 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단히 아픈 심령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병을 깨닫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사를 찾고 쓴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에게 병이 있는 줄을 깨닫고 만일 그 병을 그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누가 돈을 허비하면서 그런 아프고 괴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죄라는 중병에 걸려 그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과 영혼의 약인 성경 말씀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으레 두번째 말은 ‘죄’라니 ‘죄인’이라니 하여 멸망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자기는 도적질한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이 못났기로서니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두번째 말에 “죄,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입니다. 참 기독교이면 아무래도 두번째 말에는 “죄,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롬 3:10).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공연히 괴롭히려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병이 없으니 약도 먹을 필요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마셔도 좋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당장에는 기뻐할는지 모르나 나중에는 병이 악화되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중한 병이 있는 줄을 모르고 심상히 지나가는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친절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보면 으레 두번째 말에는 ‘환자다, 환자다’하여 겁을 주고 사람을 병신을 만듭니다”고 의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하면 곧 세상의 법률을 범할 때에만 죄로 생각합니다. 도적질이나 살인과 같은 혹독한 일만 아니면 죄는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률을 범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률을 범한 죄도 그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률이 상당히 치밀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비하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률에는 방금 사람을 죽이지 아니 하였으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금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으면 도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죄가 되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도 도적질을 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우밀 베틀이 까닭없이 심심해서 사람의 목을 베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 그것이 점점 커지면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은 미움의 결과요 미운 마음은 살인죄의 근본입니다. 실제로 살인하는 것은 흔하지 않으나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런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그 사람은 벌써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므로 마음에 품은 죄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모든 악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생각을 곧 살피서 그것을 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근본이고 몸은 마음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기계이므로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그 죄에 빠진 것과 같고 아직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죄지를 기뢰가 없거나 사람의 눈을 꺼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입니다. 만일 걸리는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곧 그 죄를 범하였을 것이므로 이미 범죄할 마음이 있으면 벌써 그 죄를 범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1200자 감상

시작은 반일까

오 태 용

바라던 이루어진다더니 마침내 그리고도 열원하던 성전 건축에의 제 1보를 던지게 되었다. 2천년대의 증현교회상을 마련하는데 중심 모체가 될 논현동 증현교회,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며 속히 우리 앞에 베일을 벗어다오.

듣는바에 의하면 소요 건축비는 대략 30억쯤 되는 것 같다. 세상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당 하나 짓는데 30억이라니 가히 천문학적 숫자이다. 그걸 어떻게 조달하나? 누가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과연 그게 이루어질 것이며 2,3년내로 완공이 되겠는가? 저마다 열려가 되어 한마디씩 합작도 하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증현교회 성전 건축에 관한한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본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다. 완성되어 있는 예배당을 하나씩 구조적으로 확인해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고 보수적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어떤 전전목을 보려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살펴야 더 잘 드러날 때가 있다. 이제 증현교회 성도들의 원색적인 믿음을 현실적으로 시험해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두가지만 생각해 보자.

먼저 필요한 건축자금은 벌써 조달되어 있다. 우리 6천 성도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생각은 혹 없는지 모르겠다. 내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재산의 십일조 바치는 것도 아까와하고 절절했다니 이는 아적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다. 예수가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기 전에는 우린 죽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을 자물로 받은 것이다. 그중 아홉(9)은 청지기 분깃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 이것에 아홉 한다면 빨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10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다. 6천 성도의 온전한 10은 초천문학적인 수의 금액이려니 30억이 무슨 돈이나 되는가. 다음으로 성전건축은 이미 다 끝나 완공되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세상철학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배(倍)로 앞서는 것이 기독교 철학이 아니겠는가! 자존자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다 하셨으니 그는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받으시면서 바로 성전을 완공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전건축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재검토하면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 보자.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예배당 짓고 망했다는 사람 본적이 있는가 말이다.

찬송가 감상 ⑥

보좌에 앉으신(새42, 합27, 개26)

(The God of Abraham Praise)

김 중 석 전도사

(세이성가대 지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 만민 주님께 늘 찬송해」

우리는 때때로 조용한 가운데 크게 깨달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열정적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개로 혹은 새로운 결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지만,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취듯이 내 맘에 깨달음이 오면서, 조심스럽고도 소중한 기쁨이 가슴에 스며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찬송은 가사를 하나 하나 음미해 가면서 조용히 불러 보면 내 맘이 절로 그 곡조에 따라 상승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리는 듯하고 내 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열려지는 듯한 감동을 받곤 한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열드려
주 거룩하신 이름을 늘 찬양해

이 찬송이 이렇듯 가슴에 스며드는 힘을 지니게 된 것은 그 곡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즉 단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우울할 정도로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음악이 점진적 상승을 반복하므로써, 슬프게 되는 것을 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힘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이 찬송에 있어서 또하나 특징할 것은 곡조와 가사가 모두 히브리 민족의 것이라는 점이다.

가사는 유대인 회당에서 불려지지는 것으로, 헤브러 말로 "Yigdal"이라는—위대한 신앙고백을 뜻하는 찬송시이다. 이것을 14세기에 Daniel Ben Judah(유다의 아들 다니엘 혹은 유다의 자손 다니엘이라는 뜻)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1770년에 Thomas Oliver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아 히브리 원어에서 가능한 한 기독교에 맞게 영어로 옮겼다. 그러니까 제 의역—직역이기 보다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곡조는 역시 Thomas Oliver가 유대인 Leoni를 찾아가 이 영어로 옮겨진 가사에 가장 적합한 곡을 유대인 회당 음악 가운데서 선택하여 달라고 했고, 이리하여 선택된 유대 회당음악을 Thomas Oliver는 Leoni라고 곡명을 붙였다.

이 찬송은 결코 열을 올리거나 힘들여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다. 복음송이 많이 불려지는 이 때 그와는 성격이 꽤 다른 이러한 찬송을 애용해 부르는데 유익한다면, 꽤 조화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찬송은 한번만 들으면 곧 익혀질 곡이므로 누구나 쉽게 배워 즐겨 불렀으면 한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6월중 구입도서

1. 신 약

1) 주님의 비유/트렌퀴 리차드저 이장림역, 생명의 말씀사 간. 266p.

2. 역 사

1) 기독교와 역사 이해/마르스텐 조지, 로버트 프랑크 공저. 홍치모역. 총신대학출판부 간 280p.

3. 종교학

1) 비교종교론/앤디슨·J지. 박영관역. 예수문서선교회. 170p.

4. 기독교윤리

1) 여성이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크리스텐슨 이블린저·김의자역 보이스사 간. 224p.

이달의 기증도서

1. 한국기독교사

1) 방에린 소진/배은희목사저. 성서연구사 발행. 55p.

2. 전도학

1) 그레슨박사 선교수기/강만승역원. 청해출판사간 206p. <이성은 선생 기증>

3. 조경학

1) 조경용소재도감(造景用素材圖鑑)/건설부편368p

4. 이단종교

1) 진리본원(本源)/카톨릭출판사간. 208p.

2) 현대성녀 마 갈가니/장면역원. 경향웅지사간 214p

5. 양서기증

1) 러시아어 신약성서 외65권(김영국장로 기증)

*극동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담당이신 김영국 장로님이 본 도서실의 발전과 성도님들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러시아어 신약성서를 비롯하여 러시아어 신앙서적 65권, 러시아어 신앙지 350여권 및 러시아어 신문 다수를 기증하여 주셨다. 러시아어를 아시는 분은 물론 쓰련안에서의 기독교성도들의 신앙활동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달에 정리된 도서

지난달 기독교 사상 합본에 이어 이번 달에는 월간 기독교교육 전권(창간호~4호 제외)을 구입 비치하여 놓았다.

월간 기독교교육은 본 교단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사의 벗과 견줄 수 있는 기독교 월간지로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 평신도 및 교사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다.

도서 열람 안내

평일 : 오전 10시~오후 6시
주일 : 오전 8시30분~저녁에 배 시작 15분 전까지
도서대출 : 폐관 1시간전까지 (단 주교교사에 한함)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열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
...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금없는 고백입니다...
...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
...라서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
...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

◇ 추천하고 싶은 책 ◇

존·C·몬스마 저·조해수 역

자연과학을 통해 본 하나님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우리들은 성경말씀을 의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잘 배워 오다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하나 둘 늘어감에 따라, 종이장보다 더 압축한 지식으로 성경을 수필대 위에 올려 놓고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올려 놓는 무례함을 얼마나 많이 범해 왔는가? 그러나 실상은 자연의 사실들을 편견없이 관찰하고, 그것들을 논증 할 때, 과학이야말로 우주의 법칙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롬1:20).

본 서는 미국내의 뛰어난 38명의 과학자들——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동물학자, 농경학자, 천문학자, 지질학자, 의사등——이 자기들의 연구분야에서 일생 연구결과 이 과학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한 글들이다.

편집자 몬스마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물의 근원과 성격에 대하여 피차간 감론을 나누어 빌리는 것은 하위급 과학자들 간에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참으로 독창적인 자질을 구비한 대가들은 자기의 지론에 대하여 언제나 결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의 준령들은 담사할수록 밝혀지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미궁 속에 빠져 가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들의 탐산(探山)도중에 별안간 현시되는 초자연적 예지의 위력에 압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알아 갈수록 저도 모르게 경배의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는 더욱더 수그러지는 것이다. 그들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지평선에 서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딜수록 더욱 질어만 가는 문제의 운무 저 너머, 간헐적으로 그러나 명백히 비취는 뇌화(雷火)를 보고 있으니, 이 뇌화야말로 어두움을 비취는 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본서는 과학적 지식 때문에 신앙적 회의를 지닌 젊은이들에게 진지한 대화의 벗이 될 것이고,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알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신앙간증의 자료가 될 것이다.

윤형철 전도사

(대학부 지도)

시편에서 주는

주간지 만나

시편 39:1

기다리며 부르짖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버리고 갈수록 태산이 가로 놓이는 듯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원수의 세력에 눌려 낙심하거나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발악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성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망칩니다.

성도의 덕중에 제일 큰 덕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괴로와도 참고 기다리고 분하여도 사람에게는 입을 봉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곡식에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려 가면서 충실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쓸데없는 자기 추측을 가지고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판단을 하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타락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우상을 만들고 범죄를 하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초조하지 말시다.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어 주시는 날 모든 난문제는 없어집니다. 원수도 문제 없고, 흥해도 문제 없고, 절무볼도 문제 없고, 여러고도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시 41:1

빈약한 자를 선대하는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전지시리도다』

물질·지식·권세등이 없어서 궁핍하고 억울함을 면할 수 없는 자는 빈약한 자입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한 자는 역시 빈약한 자입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데 언제든지 돌아보아 주시지만 특별히 재앙의 날에 돌아보아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는 날에 특별한 보호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만사는 심은대로 거둡니다.

시편 41:11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가 묘하고 강한 세력으로 의인을 죽이려 하여도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므로 의인을 돌보아 주시는 증거이며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경이 없는 자를 돌아본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므로 절대로 의인이 악인에게 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실패는 하나님께 욕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의인을 불쌍히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안할 때에도 있고 원수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있고 중병에 걸릴 때에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하신 구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므로 성공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원수를 이기었고 후세에까지 복을 물려 주었습니다.

시편 44:1-3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뿐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며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손으로서 조상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는 일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조상을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를 권고하여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복지에서 쫓아 내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니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 성이 높고 군대는 강하였으나 여러고성은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주신 것입니다(창 16:12-16).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 손과 팔이 권능을 베푸시므로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8·15해방을 맞은 것이나 6·25때 유우엔이 동원되어 중공군을 쫓으시고 서울까지 보내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감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6월중 결혼)

- 이진영양/이종면씨, 윤익열집사 2녀 9일, 오후 1시, 세종호텔에서
- 김지형군, 유유순양/배능구역 이경구씨 손자, 24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강신중군, 전영희양/경순영권할 장녀 7월 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위로 드립니다(6월중 별세)

- 박종문씨/김종순집사부군(역촌구역), 9일 별세
- 이광용씨/황송옥씨부군(문태구역) 12일 별세.
- 김만익집사/이봉남권사 부군, 23일 별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 준비에 난관의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머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금년에 정지 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들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복된 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로 후원합니다.

4.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여행중입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여행중에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또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립니다

7,8월에는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역공과도 총현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9월분 공과는 8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구역장 노트 90

임종과 장례를 돕는 길(1)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할회장)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처럼 애석하고도 비통한 일은 없다.

교우들 중에 임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임종 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 보기로 한다.

1. 운명적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얻어지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욱이 본인 사후 장례 절차에 관한 일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말문이 닫혀서 말은 못하더라도 들을 수는 있을 것이므로 실락해진 사람에게 집을 주는 말은 피해야 한다(흔히 매장을 할까? 화장할 할까? 등의 말이 오고 갈 수 있다).

2. 찬송을 계속 불러서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의 심령을 격려해 주며 위로할 것이다.

병세에 따라 임종에 겪는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를 쓰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날을 당할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찬송 525) 이런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동안 환자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조용히 운명하시는분들을 위해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358)이나 “진실하신 성령이여 신자 곁에 계시사 우리에게 유리 할때에 손을 잡고 감소서 성령말씀 어서와 집에 인도 하리라 모든 곤한 사람이 듣고 기뻐하도다”(찬송211)등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관중들이 응원을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쉬운 찬송을 불러서 책을 보지 않고 식구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옳고 환자가 잘 부르는 찬송이면 더욱 좋다.

3. 성경말씀을 자주 자주 들려 주도록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14:1 이하의 말씀이나 시편 23편 등을 읽는 것이 좋다. 환자로 하여금 계속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나를 알겠습니까” 등 의식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묻는 수도 있으나 가급적 그런 일들은 별 도움이 못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아십니까” 등 믿음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 전체가 여름행사의 열기로

—지난 6월 19일 농어촌 교역자 훈련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제 4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선두로 하여 우리교회의 올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다.

곧 이어 7월 3일부터 6일까지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4회 군중 사병훈련, 성경학원이 주관하는 제 6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으로 이어져 7월 17일 청년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각부의 수양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개교되어 8월 말까지 이어져 온 교회가 여름행사의 열기 속에서 지나게 될 것이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고조되는 농어촌교회지도자 초청훈련은 금년에도 충청도지역 교역자 58명(남 54명, 여 4명)이 참가하여 김진택목사, 김희보목사, 윤영탁강도사, 채기은목사, 정성구목사, 신성중목사, 김명혁교수 및 백성통목사 김하진목사 등의 교회내외의 강사들을 통하여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속된 강의와 훈련을 통하여 교역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결심을 갖게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1사단 지역내의 군중사병훈련은 각 군중사병 1인이 모든 전도활동과 신앙생활지도는 물론 심지어는 예배인도까지 해야하는 현실정에서 이와같은 훈련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효적절한 것인지는 참여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였다. 금년 훈련에는 우리교회의 정기성목사, 김하진목사, 이승근전도사와 외부강사로 장영출목사(공군 군중차감)와 사단내의 군목 4명이 강사로 수고하였고 100여명의 군중사병이 참석하였다.

금년 여름행사에는 연인원 3,500여명이 교육자 혹은 피교육자로 참여하며 총예산은 1,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3개월에 걸친 여름행사를 위하여 전교인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정성어린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어 교육하는 사람과 피교육자, 후원자가 한마음으로 되어 충성한 결심이 맺어져야 할 것이다.

1978년도 중현 교회 여름행사 계획표

기 관 명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참 가 인 원		예 산	비 고
					교육자	피교육자		
당 회		제 6회 장로수양회	7.13~15	충 현 기 도 원	1	41	405,000	*
성 가 부	제 1회 성가대	제 3회 수양회	8.2~5	〃	1	50	150,000	
	제 2회 성가대	제 2회 수양회	〃	〃	1	50	150,000	
	제 3회 성가대	제 3회 수양회	〃	〃	1	50	150,000	
전 도 위 원 회		제 4회 군중사병훈련	7.3~6	통 일 촌 교 회	8	101	250,000	
		제 7회 농어촌전도대파송	8.14~18	충 청 남 북 도	50		900,000	
		농어촌파송전도대훈련	8.4~5	전 국 각 지 방		50	30,000	
성 경 학 원		제 4회 농어촌교역자초청 훈련	6.19~23	충 현 교 회 당	13	58	708,650	*
		제 7회 농어촌지도자초청 훈련	7.13~17	충 현 교 회 당	10	100	620,000	
주 일 학 교	새신자(어)	제 25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4~27	충 현 교 회 당	20	100	70,000	
	영 아 부	제 4회 〃	8.15~16	〃	40	200	120,000	
	유 치 부	제 25회 〃	8.21~24	〃	40	200	175,000	
	유 년 부	제 25회 〃	7.31-8.3	〃	60	330	270,000	
	초 등 부	제 25회 초등부제회	7.24~27	〃	60	330	250,000	
	초등부(5)	제 6회 어린이수양회	8.14~17	충 현 기 도 원	30	140	510,000	
	중 등 부	제 16회 〃	7.25~29	〃	40	250	1,050,000	
	고 등 부	제 16회 〃	8.7~11	〃	40	220	945,000	
	대 학 부	제 9회 〃	8.1~5	〃	10	120	580,000	
	청 년 부	제 8회 〃	7.17~19	〃	5	150	425,000	
	장 년 부	제 1회 〃	8.1~2	〃	30	200	405,000	
	노 년 부	제 3회 〃	8.21~22	〃	20	110	320,000	
전 사 회 여 전 도 회		제 1회 하계수양회	7.19	충 현 지 도 원	1	120	150,000	
		제 1회 〃	7.20~21	〃	1	300	500,000	
계					482	3,270	9,133,650	

※(어)=어린이 (5)=5학년 * =실행

제 7 회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년들어 7번째로 열리는 농어촌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이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제 4회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시 참가했던 교회의 평신도들을 초청하여 실시함으로 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공동의 사명의식 등을 고취하여 개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열리는 본 훈련은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찬송공부, 교회생활을 위한 심리학적 상식 성도와 전도생활, 주교교육의 중요성, 모범적교사상, 농촌교회부흥과 발전책, 우리의 신앙노선, 공동번영 비판등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특별히 금번 훈련기간중 16일 주일에는 청년부와 공동으로 노방전도 주일학교 견학, 실습등을 하게 되고 이기풍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순교보통의 영화상영도 하게 된다.

금번 훈련의 장사는 대부분 우리교회 교역진이 맡고 있다.

강도사 고시 모두 합격해

이승근·윤형철·김중석·이준교·홍정식 전도사

지난 6월18일에 대전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강도사고시에 응시했던 우리교회의 이승근(고등부지도), 윤형철(대학부지도), 김중석(제이성가대지휘), 이준교(청년부지도), 홍정식(산업전도회)등 5명이 모두 합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들은 올 가을에 열릴 누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된다.

지도교역자 교체도

당회는 운영락 강도사의 사임으로 공석중에 있던 청년부 지도교역자로 현재 청년부 부지도인 이준교 전도사를, 대학부 지도 정관일 목사가 해외로 가게되어 공석인 대학부 지도에 현 중등부 지도인 윤형철 전도사를 또한 중등부 지도에는 현재 중등부 부지도인 김경선 전도사를 각각 내정 명령했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6.4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분	남	여	계	구분	I	II	III	IV	합	계
예배	I부	200	346	546	주일	149,970				
	II부	420	985	1,405		345,735				
	III부	375	712	1,087		282,400				
	IV부	73	192	265		69,220				
주일	주일저녁	291	596	887	주일	3,696,500				
	삼일	198	476	674		323,500				
	I	30	47	77		407,000				
	II	46	55	101		15,000				
배교	영아부	97	93	190	배교	82,000				
	유치부	104	101	205		2,001,774				
	유년부	169	179	348		600,000				
	초등부	164	175	339		5,000				
학	중등부	191	167	358	학	3,275				
	고등부	166	181	347		38,365				
	대학부	74	86	160		21,990				
	청년부	40	64	104		39,255				
배교	장년부	26	259	285	배교	28,105				
	노년부	23	72	95		35,665				
	산업교육부	26	79	105		215,912				
	계	2,713	4,865	7,578		55,015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인					
3,196	2,719/4,031	1,501/2,710	414/329	270/327	534/665					

토막소식

*...교회주 파이(Terry Pye)선교사를 협동목사로 정했다.

*...우리교회와 자매결연교회인 미국의 빌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이종운)의 여전도회에서 강원도 서리교회의 개척보조비로 월50불씩 보조해 주기로 하고 이미 300불을 보내왔다.

*...지난 6월 총동원전도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영아부-청년부, 10개부)와 은교인들이 참여(연인원 7,800여명, 전도시 57,000매 살포)하여 전도를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2일 실무자교육을 유년부실에서 30일에는 생활지도처장을 중심으로 학부지도 유년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어린이 세신자부에서는 17일 영아부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장년 세신자부에서는 9일 십계명의우기를 실시했다.

*...영아부에서는 제 2학기 성경공부복습을 2일 가졌다.

*...유치부에서는 2일 제 2학기 성경공부복습과 이경애 선생을 모시고 연구수업을 유치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유년부에서는 전반기시상을 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2일에는 교사기도회 및 학습평가회를 가진다.

*...초등부에서는 2일에 제 9학기 성경시험을 14일에는 총원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16일에는 장총동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갈 예정이다.

*...중등부에서는 2일 제 2학기 성경시험과 전반기 시상을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고등부에서는 2일 전반기 시상 및 성경통신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2일 신입교사를 중심으로 자체교사훈련을 실시한다.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업으로 회지「산돌」2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16~30일 사이에 반별친교회를 19일에는 교사철야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에서는 2일 전반기시상을 14일~15일에는 방학훈련을 22일에는 철야기도회를 가진다.

*...청년부에서는 9일 헌신예배를 드렸다.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67—9937 · 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계절학교를 주제로 다루었다. 우리교회 역사와 함께 시작된 계절학교를 다시 본래적인 목적에서 생각해 보았다. 인젠가는 한번 반성이 되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좋은 비판과 격려가 이번을 계기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집을 꾸렸다.

특별히 「교사의 벗」사의 임승원 목사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글을 써 주심을 무척 다행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편집부에서 작성한 「계절학교의 향방—그 제안」이

가장 올바른 방안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런 기회도 계절학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생각들이 계속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다. 격의없는 비판을 기대한다.

*...8월말까지 계속될 우리교회의 여름행사에 온 교우가 참여하여 큰 성과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간접적인 지원·힘조들이 아쉽다. 기도로 정성으로, 물질로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행수 오대용 고제원
이사래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대용 고제원

기자/정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집인숙

월 간 충 현

7월호

제6권 통권 제55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7월 16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4 번째 실시하는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이 지난 6월 19~23일 사이에 있었다.



이 훈련에는 충청남북도지방의 교역자 54명이 참가하여 훈련을 받았다.



대학부는 지난 6월 18일 김경래장로님을 모시고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대학부 성가대가 주관한 향상음악회가 6월24일 본당을 뒤편 가운데 열렸다.



각부 주일학교는 7월 2일 2학기 성경시험을 실시했다. 고등부는 무감독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유치부는 지난 7월 2일 성경이야기대회를 가졌다. 1등한 꽃반의 김영애 어린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항상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곳(광주기도원)에 와서 하루밤을 자고 시간은 흘러 지금은 해가 서산에 지기 바로 전 마지막 빛을 다하고 있는 황혼시간이에요. 주님!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모든 중학교등부 학생들은 예배실에 모여 주님께 보내는 글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까 낮에는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끌시끌하더니 지금은 주님께 보내는 글을 쓰느라 또 명상을 하느라고 글쓰는 소리와 종이소리 또 가끔씩 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나고 있을 뿐이에요. 글쓰는 학생들의 기다란 그림자가 참 우습꽁스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제 생각이지만) 외로와 보이기도 해요. 주님, 이 이야기를 꼭 주님께 쓰고 싶어요. 어젯밤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중만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열심히 소리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번 수양회에 별로 많은 준비도 없고 그냥 해마다 오는 것이 또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왔거든요. 그러나 어제 개회예배때 감사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제 저녁 저의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이번만은 꼭 큰 은혜를 받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가는 곳마다 사자가 곳곳에서 저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뿜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고3 언니, 오빠들이 3학년이 되어서 흔들리는데, 주님 저는 고3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자의 담대함과 개미의 근면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세요.

올때에는 별 기대없이 왔지만 첫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또 쓰겠어요.

1977. 7. 27

하나님의 딸 드림

(1977년도 고등부하기수양회에서)

실로
못가여